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생·손보 교차모집제도 활성화 다소 미흡

- 금감원의 교차모집제도 시행 1년간 운영 현황에 따르면 '08.9월~'09.8월까지 전체 설계사의 47.3%(10만 7,562명)가 교차모집 설계사로 등록했지만, 월평균 신계약 건수가 1건 이상인 설계사는 25.3%(2만 7,191명)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 - 생보 설계사가 손보 교차모집 설계사로 등록한 인원은 81,586명(생보설계사 227,265명의 57.7%)이며, 손보 설계사가 생보 교차모집설계사로 등록한 인원은 25,976명(손보설계사 85,911명의 30.2%)임.
- '08.9.1~'09.8.31 기간 중 교차모집설계사에 의한 보험판매 실적은 생보 131억원, 손보 2,018억원을 기록해 FY08 전체 판매실적 대비 생·손보 비중은 각각 0.2%, 1.1%로 미미한 수준임.
 - 월별 판매추이의 경우 생보는 '08.12월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, '09.1월 이후에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판매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임.
 - 반면, 손보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의료실손 상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다 '09.8월 의료실손 상품 보장 축소로 하락세로 반전됨.
- 상품유형별 판매실적은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이 109억원(83.4%), 보장성보험 16억원(12.2%), 변액보험 6억원(4.4%)을 기록하였으며,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이 1,541억원(76.4%), 장기보험 329억원(16.3%), 일반보험 148억원(7.3%)으로 나타남.
- 교차모집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, 교차모집제도 시행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당초 우려했던 교차모집설계사의 과당 유치 행위 및 불완전판매 증가 등의 부작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.
 -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.

(교차모집제도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감독방안,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감독팀, 10/20)